

간추린 청렴 소식

[1] 대검, '2025년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



대검찰청 감찰부는 올해 자체 청렴도 측정을 위해 '25. 4.부터 총 14개 청에 대한 상반기 현장 점검 및 부진 청 특별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청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목포지청, 전 직원 '기관장 청렴교육' 실시

목포지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이 직접 청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직원들의 내부청렴도 향상에 힘썼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 등 전 직원이 참석하여 반부패법령 주요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3] 홍성지청, '부패 날려버려, 청렴 야구'



홍성지청은 기관장 및 직원들이 제출한 청렴 문구를 뽑아 외친 후, 날아오는 공을 부정, 부패로 생각하고 배팅하는 청렴 야구를 통해 청렴 의식을 높였습니다.

부패 아웃! 청렴 홈런!

[4] 고양지청, '1분기 청렴간담회' 실시

고양지청은 청렴업무전담팀 간담회를 통해 형사조정실 바닥 이정표 교체, 종합민원실 친절 카드 홍보 안내문 부착 등 민원 환경 개선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 채택 안건의 이행상황도 공유하며 실질적인 청렴간담회 운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알아두세요

2024년도 국가청렴도 발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청렴도는 1995년부터 매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13년~24년)>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점수	55	55	54	53	54	57	59	61	62	63	63	64
순위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9/180	33/180	32/180	31/180	32/180	30/180
OECD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7/36	23/37	22/38	22/38	22/38	21/38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와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점과 2단계 상승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30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2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검찰 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Monthly 청렴 제130호(2024.5.)』를 참고하세요^^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연애편지 쓰듯 했다.
한 자 한 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남은 한 번만 잘해줘도 세상에 없는 은인이 된다.

그런데 백만 번 고마운 은인에게
낙서장 대하듯 했다.
말도 마음도 고르지 않고 튀어나왔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던 딸이 퀘스레 화를 내는 장면에서 흐르는 위 내레이션은,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잊고 사는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먼 사이일수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 한마디에도 공을 들이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무심하게 구는 이유는 당연한 존재라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오랜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일수록 우리는 그 가치를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공직자에 대한 신뢰 또한 이와 같아, 낙서장 대하듯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연애편지 쓰듯 정성을 다해 지켜야 할 것입니다 ☺